

No. 2013-32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8. 05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소비세증세 · 재정재건 문제와
경제성장율의 정책적 의미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주 후반 이후 주가의 대폭상승에 따른 리스크회피통화로서 엔화에 대한 수요감소, 미국의 고용사정 호전 등에 따른 엔매도·달러매입 증가로 엔화약세
- 장기금리 : 주말에 주가의 대폭 상승과 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구 분	7.29(월)	7.30(화)	7.31(수)	8.1(목)	8.2(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7.80	98.12	98.06	98.35	99.52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34.79	1,132.91	1,135.40	1,144.38	1,127.21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661.13	13,869.82	13,668.32	14,005.77	14,466.16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795	0.795	0.795	0.795	0.81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6월 수출은 자동차 등의 호조에 따라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무역적자가 전월보다 축소
*대한국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한국 무역수지흑자는 확대
- 6월 실업율은 3.9%로 4년 8개월만에 4%이하의 최저 수준

구분		2011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1.2(2.0)	4.1			-	-	-
수 출(천억엔)		653	639(637)	48	53	63	58	58	61
수 입(천억엔)		697	721(707)	64	61	66	67	68	62
對한국 수출		52.1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對한국 수입		32.9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226			-	-	-
對한국 투자		(24)	(40)	7.5			-	-	-
소비자물가(전기비상승율,%)		0.0	▲0.2(0.0)	▲0.3	0.1	0.3	0.3	0.2	0.0
실업율(%)		4.5	(4.4)	4.2	4.3	4.1	4.1	4.1	3.9
경상수지(천억엔)		76.2	42.9(47)	▲3.6	6.4	12.5	7.5	5.4	-
엔화	對미달러	79.1	82.9(80.1)	89.2	93.2	94.8	97.7	101.08	97.43
환율	對원화(100엔)	(1,391)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33	1,165.79
외환준비(기말, 천억달러)		12.9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국채금리(10년, 연리%)		0.985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리코노믹스 vs 아베노믹스』 미즈호종합연구소, 7월30일
*출처:<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today/rt130730.pdf>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현황과 과제』 일본은행, 8월1일
*출처:http://www.boj.or.jp/research/brp/ron_2013/data/ron130731a.pdf
- 『독도에 관한 특별세론조사』 일본내각부, 8월2일
*출처:<http://www8.cao.go.jp/survey/tokubetu/h25/h25-takeshima.pdf>

② 주간경제이슈 : 소비세증세 · 재정재건 문제와 경제성장율의 정책적 의미

□ 경기회복의 본격화

- 일본경제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일본정부가 발표한 경제지표를 토대로 하여 민간연구기관들이 7월 30일 발표한 전망에 의하면, 2분기(4~6월)GDP성장율이 전기비 연율 3.5% 증가로, 3분기 연속 플러스성장과 함께 전기의 4.1%에 육박
 - 소비의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고용의 개선이 다시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이 완연하게 보여지고 있음
 -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분기 광공업생산지수는 전기비 1.4% 상승, 특히 대중국 수출용 스마트폰 부품 외에 자동차가 호조를 보임
 -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조사에 의하면, 개인소비증가의 견인차가 이제까지의 주가 상승에서 소득의 개선으로 대체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 일본경제는 공공사업에 의한 경기진작이 지속되고 있는 외에, 엔저에 의해 수출도 완만한 회복이 예상
 - 다만, 수출변동 요인이 국내외에 모두 도사리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신흥국 경제의 감속 외에 유럽의 경기침체도 여전히 계속

□ 아베노믹스 효과, 고용에까지 확산

- 엔저를 기점으로 경기회복 움직임이 고용에까지 확산되기 시작
 -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고용수요가 늘어나 6월의 유효구인배율이 0.92배로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그 결과, 6월의 완전실업율이 4년 8개월만에 4% 이하인 3.9%를 기록한데 이어, 이같은 고용환경 개선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 경기회복력이 지속될 전망

□ 소비세 증세환경의 정비

- 2분기 GDP 성장률과 관련하여 두가지에 초점이 쏠리고 있음
 - 하나는 소비세 증세로서, 일본정부는 8월 12일 발표될 1차 GDP속보치와 9월 9일 발표될 2차 속보치 등을 점검하여, 내년 4월 소비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

게 되는데, 14개 민간연구기관중 13개 기관이 GDP예측치를 토대로 소비세증세 환경이 정비되었다고 보고 있음

- 다른 하나는 소비세 증세와 한 세트로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증세 직후, 소비의 급감을 피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내에서도 강함
- 그러나 대형 추가예산은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14개 기관중 절반에 가까운 민간연구기관들이 성장둔화를 이유로 한 추가예산 편성에 반대

□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과 그 정책적 의미

-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소비세 증세와 재정재건계획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본정부는 2014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1%(명목 3.1%)로 전망
 - 이같은 전망치는 내년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5%에서 8%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산결과인데,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치 0.6%에 비하여 크게 높음
 -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회복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금년도 실질경제성장률 1월 시점에서 발표한 2.5%보다 0.3% 높은 2.8%로 상향조정하였는데,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고용과 소득의 개선이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전망치와 민간연구기관전망치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소비에 있음
 - 일본정부는 긴급경제대책과 성장전략 등의 정책에 의한 소득·고용의 개선효과를 민간보다도 높게 평가하여 0.5%의 소비증가를 예측
 - 민간연구기관들은 증세전 가수요의 반동에다 소득 증가도 물가상승으로 소멸되는 점 등을 들어, 거의 마이너스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일본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예산안 책정이나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시 세수전망의 기초데이터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성장률을 실제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재정재건에 필요한 세출삭감노력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 성장만으로는 재정재건에 한계, 증세 및 세출삭감이 필수

- 일본정부의 재정재건목표 달성에 대한 불투명감이 고조되고 있음
 - 내각부는 소비세증세를 실시하여 명목 3%정도의 성장이 계속되더라도 2020년도까지 기초재정수지의 흑자가 불가능하다는 시산결과를 내놓음
 - 2020년도의 기초수지적자가 명목 GDP대비 1%대 전반에 그칠 것이라는 시산

결과를 재정자문회의에 제시

- 시산결과는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명목성장을 평균 3%정도의 성장시나리오와 예정대로 소비세의 2단계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시산결과에 의하면, 소비세 증세의 효과로 2015년도의 기초수지 적자를 2010년도 대비 반감시키는 목표는 실현가능하나, 2020년도의 흑자목표 달성은 어렵기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일층의 세출삭감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지표의 호전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를 예상하여 당분간은 디플레에 탈출에 우선순위를 둔 증세신중론도 있음
- 그러나 소비세 증세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성장만으로 2020년도까지 재정재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목성장이 5%정도는 필요하다는 민간연구기관의 분석결과도 있음
- 명목성장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국채이자지급도 증가
- 이같은 국채비용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증가액을 상회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재정적자 축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음
- 재정재건의 관점에서는 경제성장만으로 불충분하기때문에, 증세 및 세출삭감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많음

③ 경제정책동향

- 120조엔의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법인(GPIF)이 2015년까지 해외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한편, 신금중앙금고도 투융자를 본격화할 계획
 - 일본 전국 신용금고의 중앙기관인 신금중금은 각 신용금고로부터 예탁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대상은 국채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채권이 주류이며 실물자산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실적은 거의 없음
 - 수익확보를 위해 고금리가 예상되는 해외 실물자산에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고 있음
 - 주로 구미의 기관투자자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각국의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공공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본의 기관투자자들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
- 일본정부는 GPIF의 운용대상을 종래의 채권이나 주식에서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 해외의 도로나 항만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등이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는데, 투자규모는 수천억엔 이상으로 120조엔에 달하는 운용자산의 수%를 해외 인프라 투자에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
- 한편, 30조엔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신금중금은 투융자 등의 사업분야에서 미쓰비시상사와 제휴계약을 체결
 - 미쓰비시상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사정방법 등을 제공하는 외에, 전문인력 육성도 지원
 - 신금중금은 미쓰비시상사의 지원으로 해외투자의 노하우를 축적,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
- 일본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자금의 운용수입이 부진할 실정으로, 10년짜리 국채금리가 0.8%전후에서 추이하는 등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채권중심의 자금 운용은 필요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이와 비교하여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투자를 대상으로 한 투융자는 최고 10% 정도의 자금운용수입이 보장되는 데다가 경기변동의 영향도 덜 받음
 -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정된 자금운용이 가능하여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나 안정된 자금운용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인프라투자는 해외가 국내보다 우선할 전망

4 일본기업동향

□ 제조거점의 2원화를 통한 일본 중소기업들의 중장기전략

- 중소기업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과 일본 국내에 제조·개발거점을 동시병행적으로 정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신흥국에서의 현지생산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아시아 기업들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는 기술혁신과 신분야 진출 등에 특화
 - 즉, 생산거점을 국내외로 2원화하여 당면한 수요확보와 장래 성장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전략임
- 국내 거점에서는 선진적인 개발과 생산의 기능을 강화
 - 공장공급용 제품·부품의 운반장치를 제조하는 이구치키코제작소(井口機工製作所)는 이르면 금년중으로 태국에 관련 기업을 설립할 예정인데, 공 모양의 부품을 다수 배치하고 그 위에서 제품 등을 굴리는 반송장치「볼베어」의 현지조립을 겨냥, 태국을 중심으로 일본계 공장에 납품
 - 판매 및 보수에서 시작하여 수년후 조립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설계기능도 갖추 계획
 - 이미 한국에 설계·생산·판매 기능을 가진 거점이 있어 아시아 일원의 수요확보를 서두를 계획
 - 동사 사장에 의하면, 해외에 일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일본 국내에 기업혁신의 여력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
 - 일본 국내에서는 3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이바라키 신공장을 가동시킬 방침
 - 자동차 공장에서 차량을 회전시키는데 사용하는 턴테이블의 고기능품을 생산
 - 고객의 제조라인에 맞는 사양으로 제조하여, 본사 공장과 동경 공장은 볼베어나 턴테이블의 신제품개발 및 해외거점에 대한 생산기술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케 할 계획
- 불소수지 생산업체인 요도카와(淀川)휴테크는 작년 한국의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 금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개시
 - 삼성전자, LG 등 한국의 액정제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편광판접착기의 공급을 늘리는 외에, 불소수지제조장치를 해외거점에 최초로 도입
 - 일본으로부터 기술자를 파견, 일본제품과 같은 품질의 수지가공품을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을 발판으로 중국업체들과의 거래확대도 겨냥

- 일본 국내에서는 모공장으로서 첨단기술을 개발하면서 신규사업에 주력
 - 작년 시가현의 주력 공장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용 부품을 생산
 - 차체용 리튬이온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켓이라 불리는 부품으로 전지 내부의 전해액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르면 2015년에 양산에 들어갈 계획
- 카메라의 렌즈유니트 등 광학제품을 생산하는 토요테크는 일본과 중국 모두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도요카와(豊川)시에 금년 봄 영업과 개발 등을 통합시킨 조직으로서 광학기술 센터를 운영, 최첨단제품제조용 광학부품의 기술제안력을 높여 국내외 대기업들과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
 - 두부장착형 정보단말기 제조용 광학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구글의 안경형휴대정보단말기 구글글래스와 같은 첨단제품의 부품 수요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에서도 생산거점 확대와 함께, 중국의 내용 광학제품 개발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체제구축을 추진
 - 중국에 일부 개발계획가능을 이관하여 일본 국내 광학기술센터에서 중국을 관리하면서 현지에서 개발 및 설계를 추진할 방침

5 한국관련워치

□ 한·일의 롯데, 분업에서 경쟁으로

-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2개의 롯데가 동남아시아 시장개척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
 - 일본 롯데는 금년 여름 태국에 이어 금년중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신설 과자 공장을 가동, 4,000명의 직관부대를 조직하여 영업을 수행
 - M&A로 성장한 한국 롯데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대형 슈퍼의 입점을 가속화, 지역별로 특화해왔던 양사가 역내 6억이 넘는 거대시장에 주력
- 일본 롯데는 동남아시아시장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7월 중순 방콕 교외에서 신설 초코리트과자 제조 공장을 가동, 인도네시아에서는 초코파이 공장을 신설, 11월부터 생산을 개시
 - 총투자액은 65억엔으로 동남아시아의 초코리트과자 생산능력을 2.8배로 확대, 약 90억엔의 매출을 2014년에 150억엔까지 늘릴 계획이며 2014년에는 아이스크림도 시험판매 예정
- 일본 롯데는 미국 등 13개 국가·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진출
 - 그러나 매출액은 2006년에 약 30억엔으로 일본롯데 전체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1%도 채 안됨
- 태국의 신설 공장 준공식에서 일본 롯데 부사장(일본명:시게미쓰 히로유키, 重光宏之)은「일본에서 개발해낸 과자를 해외에 확대하는 것이 일본 롯데의 역할이며, 과자의 브랜드전략은 일본이 주도해나간다」고 말하면서 한국 롯데에 대한 대향감을 보이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은 전하고 있음